

2021 Sept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8월 동향

테이퍼링 기대감이 경제 주체 심리에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한은 금리인상에 대한 정보의 선반영 영향과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의 기존 통화 완화적 스탠스 유지 등으로 큰 폭 상승 동력을 보이지 못함

영국 중앙은행 테이퍼링 실행 계획 속 미 고용 부진, 대통령의 코로나 확산세 우려 발언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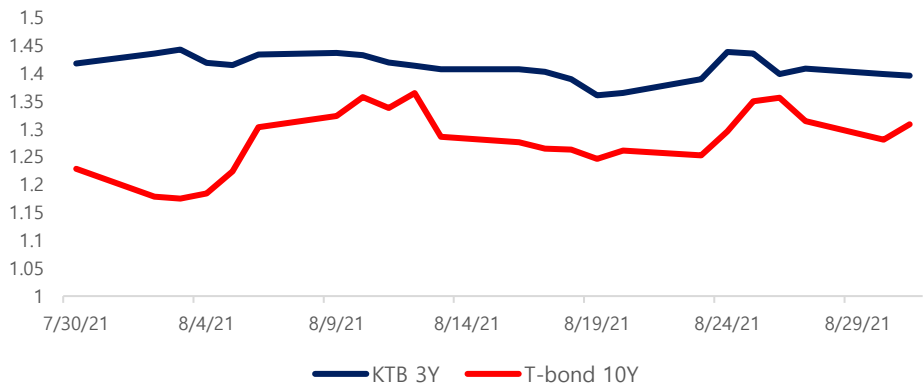
금통위 금리인상 기대가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다소 약화되었으나, 미 테이퍼링 기대, 매파적 연준의사록 등이 하단 제한

금통위 금리 인상에도 채권시장 선반영 속 잭슨홀의 완화적 기조 등으로 하락

- 8월 초, RBA의 테이퍼링 시행 계획과 미 실업보험 관련 고용 부진 등이 금리 상승 출발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대통령 발언 등도 상승 가속 요인으로 작용
 - 월 초, 영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시행 계획과 금통위 의사록의 매파 성향 및 미 실업보험 관련 고용 지표 개선 등에 연동하며 상승 출발 후 매파적 금통위원의 금융위원장 내정 소식 등이 상단 제한
 - 이어 대통령의 코로나 우려 언급에 단기 구간 금리 하락세 전환한 반면, 장기 구간은 미 고용 호조 소식에 미국금리 상승 반영하며 동조 모습 보이는 가운데 월 후반 대형 이벤트 경계감 속 등락 시현
- 중반, 금통위 금리인상 기대가 국내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소 약화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코로나 확산 영향 등이 금리 하락추세 영향 미쳤으나 미 테이퍼링 기대와 연준의사록의 매파적 성향 등이 하단 제한하는 양상 시현
 - 중반,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 기대가 국내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다소 후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하락 추세 시현
 - 대외적인 코로나 확산세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으나,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연준의사록에서의 매파적 성향 인식 등이 하단 제한하는 양상 시현
 - 후반,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채권시장 선반영 등으로 오히려 반락하던 금리는 잭슨홀결과의 완화적 통화스탠스 결과와 국내 수급 호조 영향 등으로 하락 추세 보이며 마감 8월 후반, 금통위에서 15개월만에 전격적 금리 인상 단행했지만 채권시장에서의 정보 선반영 등으로 오히려 하락 시현
 - 이어 잭슨홀에서 연준의장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에도 고용관련 완화적 스탠스 유지 등으로 당분간 현 수준 금리 유지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8월 평균
 국고채(3년): 1.41%
 T-Note(10년): 1.28%



9월 전망

잭슨홀 미팅 이후 대외적 연준 완화적 요인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나, 대내적 재정정책의 수급에 대한 영향과 국내 경기 점진적 회복 기조 기대 등으로 소폭 상단을 높일 전망

평균	1Q21	2Q21	3Q21	4Q21
국고채(3y, %)	1.04	1.12	1.40 ^(F)	1.45 ^(F)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는 점이 경기에 부정적이나 재정정책 효과 등이 이에 대한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한은은 국내 성장이 예상 경로 유지할 것으로 시사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리 상단을 높여 나가게 할 전망

9월 국고채(3Y) 금리는 1.35-1.40% 예상

- 코로나의 델타변이가 뮤 변이로 전이되는 가운데 거리 두기 현 수준 지속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겠으나, 재난 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가 금리 하단 제한할 전망

 - 국내에서도 코로나 뮤 변이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거리 두기 현 수준 지속 등이 민간 소비 회복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실행 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 등이 국채 시장 초과 공급 요인 등으로 작용하는 측면 등이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다소 약화하며 금리 하단을 제한할 전망
- 경제 당국이 보는 국내 경기 회복세는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 여기에 수출 호조세 지속과 언택트 소비에 따른 민간 부문 위축 제한 가능성 등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 국고채 금리와 시장 금리의 전반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대비 0.1%p 상향된 가운데 민간 소비도 언택트 소비 활성화로 크게 위축되지 않음에 따라 3, 4 분기 예상 성장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 이에 한은은 8월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시장 인식의 반영 등으로 국고채금리와 시장 금리 전반이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반면, 대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고용 부문의 강한 확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현 수준 금리 유지의 통화완화를 연내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영향 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 제한과 함께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내 테이퍼링 시사에도 이는 금리인상의 긴축과는 별개로 언급
 - 여기에 경제의 광범위한 회복 전제와 함께 고용의 회복 뒷바침을 강조하며 당분간 통화완화적 스탠스 유지를 천명한 점 등이 글로벌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국고채금리의 상단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 잭슨홀 이후 시장 테이퍼링 기대감 지속 ·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공급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추가 변이 확산세 지속 가능성 · 연준의 연말까지의 완화적 스탠스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8월 동향

미 물가지표 개선 속 시장 테이퍼링 기대,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에 따른 외국인 역송금 수요 강화 및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큰 폭 상승 후, 잭슨홀 미팅의 완화적 통화 스탠스 등으로 하락 추세 전환 시현

미 7월 PCE,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시장 테이퍼링 기대감 강화

- 월초, 기업실적 호조 등이 국내 증시 등에 수급개선 영향을 미쳤으나, 7월 고용지표 호조에 시장의 테이퍼링 기대와 연준위원의 매파적 스탠스에 달러 강세 반영되며 상승 전환
 - 연속된 미국 PCE 지표 개선에 시장 참가자들의 테이퍼링 기대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 반영 출발. 이어 미국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호조 등이 하락 전환에 영향
 - 그러나 미 7월 고용지표 개선과 이에 따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기대, 그리고 연준위원의 테이퍼링 스탠스 등이 달러 강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하는 모습 시현

하반기 국내 반도체 산업 업황 부진 전망과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 등이 환율 상승 견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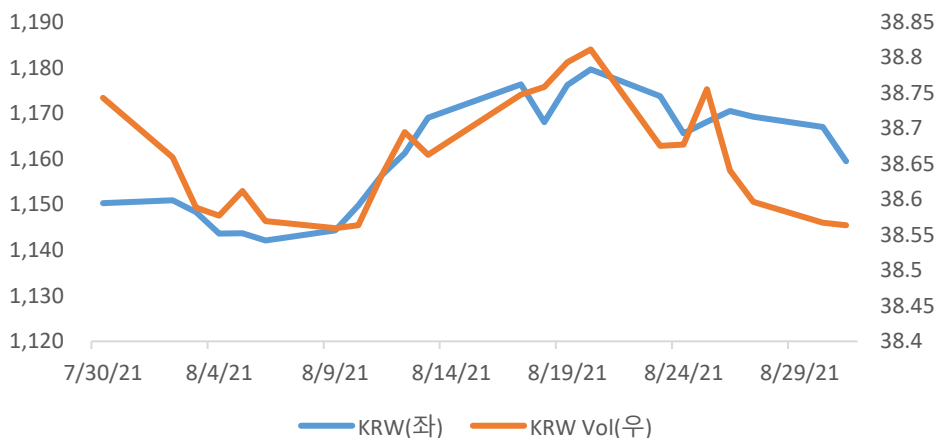
- 월 중반,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하반기 업황 부진 이슈가 불거지며 외국인 증시 역송금 수요 강화 속에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이 환율 상승 지속에 영향
 -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하반기 업황 부진 전망에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확대되며 원화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남
 - 여기에 국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전후를 기록하며 8월 예상되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된 측면도 자본 이탈과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과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기존 완화적 스탠스 유지 등으로 큰 폭 하락 시현하며 마감

- 6월 후반, 카불 테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한은 금통위 금리인상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 영향 반영으로 큰 폭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 아프간 테러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했음에도 한은 금통위 금리인상 결정이 상대적 원화 강세를 견인하는 양상. 그러나 그 효과는 길지 않게 나타남
 - 반면, 연준의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테이퍼링과 통화정책 긴축을 구분하며 완화적 스탠스가 고용에 따라 변모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환율은 급격한 달러 약세 반영, 완전한 하락기조 보이며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61.1
8월말 달러/원 환율 : 1,159.5



9월 전망

코로나 변이 속 확진자수 지속 등이 원화 강세 부담 요인이나, 잭슨홀 완화적 통화스탠스 단기 지속 가능성 속에 국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내수 부문 지지 등이 원화 강세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1	2Q21	3Q21	4Q21
달러/원 환율(원)	1,114.7	1,118	1,165 ^(F)	1,185 ^(F)

단기적 잭슨홀 미팅의 완화적 기조가 달러 약세 견인하겠지만, 미 물가지표 발표 시점 등에 시장 테이퍼링 기대 이슈는 시점별 달러 강세 견인할 것으로 보임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점증하는 추세

9월 달러/원 환율
1,125 ~ 1,145원 변동 예상

- 8월 미 잭슨홀 미팅의 비둘기적 연준 의장 스탠스는 9월 FOMC까지 이어질 전망. 이에 시장 테이퍼링 기대도 다소 약화되었지만, 추가 물가 지표를 확인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재차 테이퍼링 기대 강화되며 달러 강세 흐름 전화 예상해 볼 수 있을 전망
 - 8월 잭슨홀의 도비쉬한 영향이 9월 FOMC까지 달러 약세 기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9월 FOMC도 연준의 비둘기적 성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그 이후 물가지표 상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테이퍼링 이슈가 재차 드러나며 점진적 달러 강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
- 국내 수출 여건 개선세 지속하는 가운데 한은의 11월 중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이 원화 강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8월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에도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 등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보다 민간 소비가 선방하는 등 경기회복이 예상 경로대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보임
 - 여기에 한은 금리인상 이후 현 경기 여건과 금융불안정성을 고려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예상되는 측면이 연준의 완화적 통화 기조와 함께 복합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델타 변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뮤 변이로 전이되는 양상 등이 민간 부문 회복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산업 규제 이후 회복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등은 단기 환율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됨
 - 최근 델타변이가 뮤변이로의 전이 과정에서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우려 속에 자영업자 폐업 속출 등의 측면이 민간 부문 회복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중국이 산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기불확실성도가 높아지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과 위안화 약세 기조 전환 가능성 등이 동조적 원화 약세를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확산세 유지 중국 산업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불확실성 전이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고용 증시한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시장 기대 재난 지원금 지원 속 국내 예상 성장 경로 유지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잭슨홀 이후 달러 약세에도 일본내 코로나 확산 지속과 이에 따른 경기회복 약화 속 스가총리 사임 이후 정국 불안 우려로 엔화 약세 예상. 원화는 잭슨홀 이후 상대적 강세 예상으로 엔/원 하락 흐름 전망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9.8
8월 엔/원 평균환율 : 1,057.3

9월 엔/원 예상범위 : 1,035~1,055

- (동향) 글로벌 경제지표 불확실성 속 강세 출발한 엔화는 이어진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되며 약세 전환. 그러나 일본내 델타변이 확산, 아프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강세 흐름으로 재전환 시켰으나, 잭슨홀 이후 완화적 연준 스탠스에 강세 흐름 후 보합권 등락. 엔/원은 테이퍼링 이슈, 외국인 역송금 등 원화 약세 반영으로 상승 후 잭슨홀 이후 하락
- (엔/원 전망) 잭슨홀에서 연준의장 비둘기적 스탠스 재확인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력 상대적 미약 속에 스가 정권 사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할 전망. 이에 반해 원화는 회복 경로 지속 속에 연준 영향 등의 강세 흐름에 따른 엔/원 하락 예상
 - 연준의 잭슨홀 이후 비둘기적 스탠스 재확인에도 일본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과 스가 총리 사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엔화의 약보합 흐름에 영향 미칠 전망
 - 이에 반해 원화는 잭슨홀 영향에 따른 단기 강세 흐름 속에 경기회복 경로 유지, 외국인 자본 유출의 확연한 감소 등으로 강세 보이며 엔/원 환율 하락 추세 유지가 예상

유로/원 전망

잭슨홀에서의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 미 고용불안 지속 등이 단기 달러 약세 견인할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유로 강세 견인하며 원화 대비 상대적 우위 보일 것으로 예상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767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66.7

9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65~1,385

- (동향) 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시사 속 시장 테이퍼링 기대 등이 초반 유로화 약세 견인. 이어 방향성 혼재 양상 보였으나, 아프간 사태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추가 약세 후 잭슨홀의 완화적 스탠스 시사로 큰 폭 강세 전환. 유로/원 환율은 초중반까지 하락 흐름 나타내다 후반 잭슨홀의 영향이 상대적 유로 강세 견인하며 상승 전환
- (유로/원 전망) 유로존내 '위드코로나' 시행 속 경제 재개 움직임 강화되는 분위기에도 ECB의 팬데믹 긴급재난프로그램 연내 지속 등이 유로 약세 요인이거나 최근 연준 완화적 기조 강화에 따른 달러 약세가 단기적 유로 강세 견인할 듯. 원화는 유로화 대비 상대적 약세 흐름 예상
 - 최근 전세계 변이 확산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 진행하며 경제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 유로 강세 요인이거나, 여전히 미미한 경제 회복 상황에 따른 PEFf 연내 지속과 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에 따른 달러 약세 등이 단기 유로 강세 견인할 전망
 - 유로/원 환율은 최근 잭슨홀에서의 미 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 재확인 요인이 두 통화에 강세 요인 모멘텀 작용할 가운데 상대적 유로 강세 예상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전치			<p>한 8월 수출/수입(29.6%/38.1%, YoY) 8월 무역수지(\$1772M), Markit PMI 제조업(53.0) 미 8월 ISM 제조업지수(59.5), New Orders(64.9) 8월 ISM 고용(52.9) / 구매물가지수(85.7) 8월 Markit 제조업 PMI(61.2) 7월 건설지출(0.1%, MoM) 유 8월 Markit PMI 제조업(61.5), 실업률(7.7%)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50.3) 일 8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52.4)</p>	<p>한 8월 CPI(0.2% MoM, 2.6% YoY) 8월 외환보유고(\$458.68b) 미 7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 수주(1.4%) 유 7월 PPI(1.4% MoM, 10.2% YoY) 일 8월 본원통화(15.4% YoY)</p>	<p>미 8월 ISM 서비스(64.1) 8월 Markit PMI 종합(55.4)/서비스(55.2) 8월 실업률(5.4%), 경제활동 참가율(61.7%) 8월 시간당 평균임금(0.4% MoM, 4.0% YoY) 유 8월 Markit PMI 서비스(59.7) 8월 Markit PMI 종합(59.5) 7월 소매판매(1.5% MoM, 5.0% YoY) 중 8월 Caixin 종합 PMI(53.1)/서비스 PMI(54.9) 일 8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43.5)/종합(45.9)</p>	
5	6	7 RBA 통화정책회의	8 美 Beige Book	9	10	11
	<p>유 9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22.2) 독 7월 공장수주(4.1% MoM, 26.2% YoY)</p>	<p>한 8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유 2Q 고용(0.5% QoQ, 1.8% YoY) 9월 ZEW 서베이 예상(42.7) 일 7월 가계 소비지출(-5.1%, YoY) 7월 실질 임금총액(-0.4%, YoY) 독 9월 ZEW 서베이 예상(40.4) 오 9월 RBA 기준금리(0.1%)</p>	<p>미 연준 베이지북 발표 8월 기준주택매매(2.0%, MoM) 유 9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85%)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5%) 일 9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참고(-0.1%)</p> <p>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p>	<p>미 8월 소비자신용지수(\$37.690b) 8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유 9월 ECB 단기수신금리(-0.5%) 중 8월 CPI/PPI(1.0%/9.0%, YoY) 8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080.0b) 일 8월 통화량 M2(5.2%, YoY), M3(4.6%, YoY) 8월 공적기계 수주 전년비(93.4%)</p>	<p>미 8월 PPI(1.0% MoM, 7.8% YoY) 독 8월 CPI(0.0% MoM, 3.9% YoY)</p>	
12	13	14	15	16	17	18
		<p>한 8월 수출물가지수(3.5% MoM, 16.9% YoY) 8월 수입물가지수(3.3% MoM, 19.2% YoY) 8월 통화공급 L(0.8% MoM), M2(0.8%, MoM) 미 8월 CPI(0.5% MoM, 5.4% YoY) 8월 NFRB 소기업 낙관지수(99.7) 일 7월 광공업생산(-1.5% MoM, 11.6% YoY) 7월 설비가동률(6.2% MoM)</p>	<p>한 8월 실업률(3.3%) 미 8월 수출물가지수(1.3% MoM, 17.2% YoY) 8월 수입물가지수(0.3% MoM, 10.2% YoY) 8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0.9%, MoM) 유 7월 산업생산(-0.3 MoM, 9.7% YoY) 2Q 노동비용(1.5%) 중 8월 소매판매(8.5%, YoY) 8월 광공업생산(6.4%, YoY)</p>	<p>미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1.9) 7월 기업채고(0.8%) 일 8월 수출/수입(37.0%/28.5%, YoY)</p>	<p>미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망 유 7월 ECB 경상수지 (21.8b) 7월 건설생산(-1.7% MoM, 2.8% YoY) 8월 CPI(2.2% YoY)</p>	
19	20 한국 휴장(추석 연휴, ~221 한국 휴장(추석 연휴)	22 한국 휴장, BOJ 통화정책회의	23 美 FOMC, BOE 통화정책회의	24	25	
	<p>미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독 8월 PPI(1.9% MoM, 10.4% YoY)</p>	<p>미 8월 주택착공건수(-7.0% MoM) 8월 건축허가(2.6% MoM)</p>	<p>미 8월 기준주택매매(2.0%, MoM) 유 9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85%)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5%) 일 9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참고(-0.1%)</p>	<p>미 9월 FOMC 금리 결정(0.00% ~ 0.25%) 9월 미 연준 준비금참고 금리(0.15%)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53) 9월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8월 기준주택매매(2.0%, MoM) 유 9월 유토크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p> <p>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p>	<p>한 8월 PPI(7.1%, YoY) 미 8월 신규 주택매매(1.0%, MoM) 9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일 8월 전국CPI(-0.3% MoM) 8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독 9월 IFO 기업환경지수(99.4)</p>	
26	27	28	29	30		
	<p>한 8월 소매판매(13.1%, YoY) 미 9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8월 M3 통화공급(7.6%, YoY) 일 8월 PPI서비스(1.1%, YoY)</p>	<p>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9월 FFA 주택가격지수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중 8월 산업생산(16.4% YoY)</p>	<p>유 9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독 10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1.2)</p>	<p>한 10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서비스/제조업 8월 광공업생산 8월 경기순환명 선행지수 변동 미 2Q GDP물가지수(6.1%), GDP연간화QoQ(6.6%) 2Q 개인소비 9월 MNI 시카고 PMI 중 9월 종합/제조업/서비스/제조업PMI 일 8월 광공업생산, 연간 주택착공지수, 8월 소매판매(1.1%, MoM)</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